

# 곡성군 체류형 관광도시사업 경영악화로 폐점

수십억 투자 기차마을레일펜션 곡성아트빌리지까지 계약 해지 예산투입불구 위탁업체에 전가 “무리한 투자”vs“대외여건 악화”

곡성군이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레일펜션 등 숙박시설이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적에 눈 먼 무리한 투자로 혈세 낭비 아니냐는 군민들의 지적에도 군은 대외여건 악화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 기차마을을 매개로 한 숙박·체험 시설이 이용객 저조로 수년째 문을 닫거나 위탁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012년 곡성기차마을에 조성된 섬진강 기차마을 레일펜션은 이용객 저조로 지난 2019년 이후 5년째 방치되고

있다. 군은 해당 레일펜션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3억7500만원을 투입해 객실 23개 규모(최대 116명 수용) 새마을호 12량을 구입했다.

당시 군은 레일펜션이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정원박람회 등 인근 지역 축제를 찾는 관광객이 유입되면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매년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는 방문객 수가 120만명을 넘고 있지만 정작 섬진강 기차마을 레일펜션은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군 직영인 레일펜션은 위탁사업자를 모집해 3년 단위로 계약을 했지만 2017년과 2019년 두차례 위탁업자들이 운영을 포기한 상태. 현재는 군이 플랫폼 조성사업을 이유로 펜션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된 곡성아트빌리지 역시 경영악화로 위탁업체 계약 해지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곡성기차마을에 조성된 섬진강 기차마을 레일펜션. **곡성군 제공**

곡성아트빌리지는 2000년 초반 조성된 후 지속적인 군 예산이 투입된 곡성군 대표 관광지이며 각종 체험장 및 숙박시설 등을 갖췄다.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위탁계약을 맺은 A업체는 코로나 19로 이용객이 급감하자 군에 위탁료를 낮춰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위탁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일각에선 군 예산이 투입된 군 시설임에도 활성화 노력은커녕 수익악화 책임을 위탁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곡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대외여건이 악화돼 관광객 자체가 줄어 수익악화 현상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위탁업체 소관인 만큼 정확한 이용객 수치를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곡성군의회 B의원은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군에서 무리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군민 혈세만 낭비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군 직영 숙박시설이 관광객들에 외면받는 원인을 분석해 트렌드에 맞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곡성=김대영 기자**

## 내일부터 전시·공연 등 풍성 장성군립도서관

장성군은 12일 ‘제2회 도서관의 날’과 ‘제60회 도서관 주간(12~18일)’을 맞아 군립도서관에서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주제를 문구는 장성군립중앙도서관 구지연 주무관의 대국민 공모전 대상 수상작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중앙도서관에서는 4세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요리조리 별론 셰프의 동화 이야기’ 공연이 진행된다. 명작동화 내용을 ‘미디어 마술’을 이용해 재창작하거나 ‘풍선 예술(별론아트)’과 구연동화로 구성해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성인 대상 ‘꽃잎 조명등 만들기’ 특강도 운영한다. 자연소재 ‘라탄’을 이용해 집안 분위기를 살리는 조명등을 만들어 본다.

다양한 전시도 눈길을 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설레는 봄’은 ‘어린이 북극레이션(주제별 도서 전시)’, ‘당근 유치원 원화 전시’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1964년부터 시작된 도서관 주간 포스터 20여 점을 만나는 전시도 새롭다.

그밖에 도서 대출 정치위원을 구제하는 ‘연체 끝! 독서 시작!’, ‘과월호 잡자’ 나눔 행사도 열린다.

삼계도서관은 ‘삶-고통’이라는 주제로 성인 대상 인문학 특강을 한다. 무겁게 느껴지는 주제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북도도서관은 성인 대상 ‘스트레스 타파! 힐링 보드게임’, ‘꿈과 성장’을 주제로 한 도서, 수강생 작품 전시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립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도서관팀(061-390-8491)에 문의하면 된다. **장성=유병현 기자**

## KBS전국노래자랑 예심 신청 연장 화순군, 17일까지

화순군은 10일 KBS 전국노래자랑 화순군편 예심 신청 접수 기간을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예심 신청은 기존 3월27일부터 4월 11일까지였으나 더 많은 군민의 참가를 위해 신청·접수를 17일까지로 연장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접수 기간 내 미신청자는 예심 당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 앞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예심은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21일 오후 1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노래 실력, 장기 등을 심사한 후, 본선에 진출할 15개 팀의 참가자를 선정하게 되며 녹화는 오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세계거석테마파크 내 특설무대(우천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노래와 춤 등 장기와 끼를 가진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가해 주길 바란다”며 “본 행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

## 화순군,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화순군은 10일 잦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에 약 17억원의 예산을 수립·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 대상 농작물은 70종이며 지역별 가입 품목이 다르고 품목별 가입 일정이 달라 농업인이 먼저 지역농협을 방문, 구체적 일정 등을 확인한 후 가입·신청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재배하더라도 품목별 파종 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른 만큼, 재배작물의

가입 시기도 꼭 확인해야 한다. 신청 이후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까지 마치면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현재 가입 품목은 ‘밤·대추·고추’로 밤과 대추는 15일부터 5월10일까지, 고추는 15일부터 5월1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잦은 만큼 재해 발생 예측이 어렵고 일상화되어 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경영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가입 기간인 품목에 대하여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영광군이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완도와 제주에서 확인됨에 따라 방제를 위한 해빙기 집중 방역활동을 펼쳤다. **영광군 제공**

## 영광군 ‘2년 연속’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영광군이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영광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8400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는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정 전반에 대해 엄격한 세정지표

를 점수로 환산해 우수 시·군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세수 확충, 세외수입, 세정 운영 등 세정업무 전반에 걸쳐 32개 항목을 평가했다.

영광군은 세원 발굴과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영광=김도윤 기자**

## 보성군 ‘BS삼총사’ 이모티콘 이벤트

보성군은 12일 카카오톡 보성군청 채널을 통해 보성군 SNS 캐릭터 ‘BS삼총사’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BS삼총사’는 보성군 대표 특산품인 보성녹차와 별교꼬막·보성키위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2020년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우리동네 캐릭터’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BS삼총사’ 이모티콘은 16종이다. 보성군 SNS 캐릭터 녹차·꼬막·키위문이 다량대축제를 응원하고, 보성차밭을 즐기는 모습 등이 익살스럽게 표현됐다.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는 12일 시작해 선착순 3만5000명에 배포한다.

보성군청 채널을 미리 추가해 두면 순차적으로 이모티콘 다운로드 메시지가 전송된다.

보성군청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이용자는 이모티콘 이외 보성군 주요 소식과 축제·공연 정보 등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보성군은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가 열리는 오는 5월3~7일 한국문화관광원 일원에서 ‘BS삼총사가 쓴다’는 보성군 SNS 홍보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양기림 기자**

## 영광군, 일본뇌염 방역 활동 강화

영광군이 최근 완도군과 제주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되어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해빙기 집중 방역활동을 전개했다.

10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매개 모기 발생 차단을 위해 해빙기에는 대형건물 정화조·하수구 등에 친환경약품을 투입해 유충구제를 완료했다.

3월부터는 월 1회 이상 읍·면 자율방역단과 함께 일제 방역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다.

방역 취약지인 축사, 웅덩이, 일구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모기 유충 및 성충 구제를 위한 빈틈없는 방역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본뇌염의 경우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표준 예방 접종 일정에 맞춰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일본뇌염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